

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보험사, 유로지역의 국경간 보험감독 완화 움직임에 반대

- 유로지역의 주요 보험사들은 금번 G20 정상회담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국경간 보험·금융감독체제 강화에 역행하여 이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유럽 내의 움직임을 지적하고, 이와 같은 행동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자는 G20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경고함.
- 그러나 11월 19일 브뤼셀에서는 동일 안건을 주제로 하여 유로지역내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질 예정인데, 본 협의에서는 G20에서 결의된 그룹감독체계(group supervision) 안이 상당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됨.
 - 프랑스와 독일이 그룹감독체계를 완화하자는 의견에 지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, G20 원안의 희석을 바라지 않는 영국 등이 저지할 세력을 얼마나 규합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임.
- 2012년 시행 예정인 solvency II가 주창하는 국경간 ‘그룹감독체계’에 따르면 다국적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선도 감독자로서 보험그룹 전체에 대한 요구자본 등을 설정하고,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선도 감독자와 협의하게 되어있음.
- 그러나 이와 같은 체계에 따르게 될 경우 다국적 보험사를 다수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, 독일, 영국과 같은 국가보다 중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타 국가들은 자국지위의 강등을 우려하면서 그룹감독체계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.
 - 이에 따라 의장국을 맡고 있는 프랑스는 최종 절충안으로서 그룹감독체제는 유지하되 지원제도는 철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.
 - 영국보험협회는 이와 같은 움직임은 G20의 핵심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현재의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국가 단위별 은행 감독체제로 회귀하자는 의견과 동일하다고 주장함.
 - 유럽보험·재보험연맹도 영국보험협회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유로지역 보험사들의

글로벌 경쟁력은 소비자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발생되는데, 감독체계 완화는 경쟁력을 잃을 뿐이라고 주장

□ 19일의 브뤼셀 회의가 완화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경우 오는 12월초로 예정된 유로지역 재무장관회의에 중요 안건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, 이 경우 유로의회로부터 상당히 다른 형태의 대체 안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.

- 결국 19일의 유로지역내 감독체계 완화 조율은 내년으로 예정된 G20 단기 action plan 수행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성공적인 범세계적 금융위기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.

(Financial Times 11/19
White House G20관련 보도자료 11/15)